

## 자기구실 만들기 : 지능에 대한 신념 및 목표성향, 노력/결과중심의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김 지 경\*  
한국교원대학교

성공적인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자기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목표성향, 효능감, 평가두려움, 양육태도가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예측대로 이 변인들이 모두 자기구실 만들기과 관련이 있어, 부모가 노력중심의 양육태도를 견지할 수록, 자녀가 지능은 노력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을수록, 자기향상과 성장, 능력개발, 충분한 잠재력에 도달 하려는 성장목표성향을 갖을수록,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결과중심의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가 지능은 고정적인 것이라고 믿을수록, 도전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가치, 능력, 호감 정도를 평가하거나 측정하는 기회로 인식하는 확인목표성향을 갖고 있을수록,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효능감이 적을수록 구실 만들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양육태도, 지능에 대한 신념, 목표성향, 자기구실 만들기 변인간에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예측하여 모형을 만들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태도가 지능에 대한 신념과 목표성향을 매개로 하여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양육태도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결과중심 양육과 노력중심양육이 다른 패턴을 나타내었다. 결과중심양육은 매개에 의한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더 큰 반면 노력중심양육은 지능에 대한 신념과 목표성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두가지 양육태도가 서로 다른 경로로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논의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이후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자기 구실 만들기,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목표성향, 부모의 양육태도**

현대와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 자기 만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계속 발전해나가기 바란다. 그러나 항상 결과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수행결과가 부정적일 때 우리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수행의 결과가 부정적일 때 우리는 자기보호적인 귀인을 하게 되어, 결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평가나 피드백이 잘못되었다고 불평을 하거나 아

\* 본 연구는 2007년도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김지경,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전화 : 043) 230-3643, E-mail : adeleide@knue.ac.kr

니면 운이 없었다고 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귀인은 결과가 발생한 이후의 전략일 수 있는 반면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아예 시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핑계거리를 만들어 수행의 결과가 부정적일 것에 대해 미리 구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질질 끌거나 과제를 마감시한까지 미루는 것, 시험 전날 과음을 한다던가,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늦잠을 자서 시험에 늦는 경우와 같이 수행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행동을 하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변명거리를 미리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행위자가 미리 의도적으로 이런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자기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이러한 자기구실 만들기를 왜 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자기구실 만들기가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목표성향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중 노력중심의 양육태도, 결과중심의 양육태도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 자기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

자기구실 만들기는 성공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혹은 장애가 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선택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무의식적 수준, 혹은 비의도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실패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설명하지 않고 노력부족이나 상황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신에 대한 개념이 위협받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Rhodewalt & Davidson, 1986). 이러한 자기구실화의 예는 전략적으로 일부러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질질 끌기, 약물복용이나 알콜섭취,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선택 하기 등이 있다(Berglas & Jones, 1978; Higgins & Harris, 1988; Martin, Marsh, & Debus, 2001, 2003; Rhodewalt & Davidson, 1986; Shepperd & Arkin, 1989; Tice & Baumeister, 1990). 자기구실 만들기는 귀인과는 구별되는데 귀인은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일어나지만 자기구

실 만들기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이전에 선택되는 전략이라는 것이 다르다. 또한 모든 질질 끌기 행동이 자기구실화라고 볼 수는 없다. 자기구실 만들기라고 설명되기 위한 행동들은 자기보호적인 혹은 자기증진적인 동기가 미리 상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이 있을까?

####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학업성취

우리의 정서와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결과의 정확한 원인 자체보다는 그 원인을 암묵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권준모, 이수정, 이훈구, 1998; Greenwald & Banaji, 1995). 암묵적 이론 가운데 학교 장면에서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은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다. 지금까지의 지능에 대한 연구들은 순수지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구성요소들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Sternberg(2000)는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들이 다양한 성취상황에서의 행동을 더 잘 예측해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지능의 속성에 대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능지수 자체보다 학생들의 성취와 관련된 동기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능이 성공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지, 또 지능이란 것이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지, 아니면 지능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이후의 경험이나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동기와 성취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Bandura와 Dweck(1981)은 지능에 대한 두 가지 암묵적 이론을 제안하였다(Bandura & Dweck, 1981). 그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으며 정체적이라고 믿는 정체이론(entity theory)과 지능은 유연하며 증진될 수 있다고 믿는 증진이론(incremental theory)으로 구분하였다(Dweck & Leggett, 1988). Bandura와 Dweck(1981)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때의 질문은 지능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 다음 지능에 대한 정체 태도를 지닌 집단과 증가 태도를 가진 집단으로 나눈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과제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세 가지 과제는 첫째, 아주 쉬워서 실수하지 않을 과제, 둘째, 어렵지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 셋째, 어렵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과제였다. 처음 두 가지 과제는 평가목표(performance goal)와 관련된 과제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나쁜 평가를 피하는 목표를 갖으며 세 번째 과제는 학습목표(learning goal)와 관련된 과제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결과는 지능에 대한 정체적 암묵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과제를 많이 선택한 반면, 지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암묵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목표와 관련된 과제를 많이 선택하였다. Legette(1985)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Mueller와 Dweck(1997)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에게 강의 선택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는 강의와 학점을 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강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지능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학생들의 과제 선택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능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성취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Henderson과 Dweck(1990)이 중학교 입학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 높은 성취를 보였던 아이들 중 지능에 대한 정체이론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의 학업성취가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지능에 대한 증가이론을 견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학업성취의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나 초등학교 때 학업성취가 높지 않았지만 지능의 증가이론을 믿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두드러졌다.

지능에 대해 어떠한 암묵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적인 과제 대상에 대한 다른 가치, 태도,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다른 감정과 사고를 유발시킨다. 지능에 대한 정체이론을 믿게 되면 고정된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의 과시, 도전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방어적이며 어려운 과제에 대한 무기력한 행동양식을 보이게 된다. 반대로 지능에 대한 증가이론을 믿게 되면 도전과 학습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

다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에 주력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효율적인 전략수립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학업성취나 지능을 가진 학생이라도 이들이 지능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미래의 성취를 예견하게 해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권준모, 2000).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없으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상해보면 지능에 대한 정체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능이 노력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이라고 믿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신의 지적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하려고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자기효능감과 자기구실 만들기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사회인지(social cognition)이론에서 유래한 구성개념으로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자원 및 행동절차를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을 말한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의 종류와 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믿음, 다양한 여건 하에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믿음,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다. Bandura(1986)는 개인이 각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체계(self-system)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자기체계가 자체적인 인지구조와 정서구조를 갖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조절(self-regulation)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조절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97). 이때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신념과 기술을 갖고 수행하였을 때 수행의 결과가 유발된다(박영신,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과제지속도가 높으며(Schunk, 1984) 과제가 실제로 성공하기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노력하며(Bandura & Schunk, 1981)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지향 성취동기 뿐 만 아니라 사회지향 성취동기가 높았다(정갑순 등, 2002).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 가운데 하나는 부모자녀관계를 꼽을 수 있는데 부모에 대해 고맙고 죄송하고 친밀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김의철, 박영신, 1999;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Collins, 1982; Zimmerman 등, 1992; Park & Kim, 1999).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능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으며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적게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정체적 지능에 대한 신념과 지능에 대한 자신감, 자기효능감,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기존의 연구들과 논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지능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지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자신의 지능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존의 경험을 적용하는데 더 자신감이 있고 이러한 자신감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도 관련이 있어, 효능감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고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적게 하게 할 것이다.

목표성향

성취상황에서의 동기, 정서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목표성향으로는 Dweck(1986)이 제시한 학습목표(learning goal)성향과 수행목표(performance goal)성향을 들 수 있다. 학습목표성향을 지닌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며 과제를 숙달함으로써 많이 배우고 향상되는데 관심을 갖는다. 수행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우수하게 보이며 자신이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증명하는데 관심을 갖

는다. 학습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능력을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전 능력과 비교 평가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Butler, 1987; Schraw, Horn, Thorndike-Christ, & Bruning, 1995; Treasure & Roberts, 1994). 반면 수행목표성향을 지닌 사람은 능력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개인의 능력을 타인과 관련하여 평가하며 과제를 선택할 때 개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Harackiewicz & Elliot, 1993; Nicholls, 1984; Phillips & Gully, 1997). 뿐만 아니라 목표성향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실패 경험 후라고 할 수 있다.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수행목표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무기력한 반응을, 학습목표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숙달지향적 반응을 보였다(Dweck & Leggett, 1988).

Dyckman(1998)은 학습/수행 목표 성향을 포괄하며 성취상황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성향으로서 ‘확인추구(validation-seeking)’와 ‘성장추구(growth-seeking)’를 제안하였다. 확인추구 자들은 자신의 가치, 능력, 호감을 증명하려는 강한 동기적 욕구를 지닌다. 반면 성장추구 자들은 자기향상과 성장, 능력개발, 충분한 잠재력에 도달하려는 강한 동기적 욕구를 지닌다. 확인추구자들에게 도전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은 자신의 가치, 능력, 호감 정도를 평가하거나 측정하는 기회로 인식되며 대인간 상호작용의 결과 역시 개인의 가치, 능력, 호감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 혹은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진다. 성장추구자들은 도전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을 개인의 성장, 학습, 향상을 위한 기회로 평가하기 때문에 도전과 역경에 기꺼이 직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한 구분으로 과제관여목표(task-involvement goal)와 자아관여목표(ego-involvement goal)가 있다(Nicholls, Patashnick, & Nolen, 1985).

이러한 목표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기구실 만들기가 달라지리라고 추론 할 수 있다. 확인추구 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할 것이며 반면에 성장추구 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구실 만들기를 덜 사용할 것이다. 성장추구 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은 성장과 능력 개발이 주요 동기이기 때문에 평가상황을 피하려고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성향과 관련하여 또 하나 갖게 되는 의문은 이러한 목표성향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 성향의 차이가 지능에 대한 신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지능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 자기효능감과 목표성향

Bandura(1977)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성향과 지각된 통제력 수준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언한 바 있다. 실제로 후속 연구들에서 학습목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자기 효능감을 나타냈지만 수행목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통제감을 나타내고(Duda & Nicholls, 1992; Dweck, 1986), 부정적 결과 혹은 실수를 실패로 해석함으로써 보다 낮은 자기효능감을 지니는 경향이 있었다(Ford et al., 1998; Potosky & Ramakrishna, 2002).

Dyckman(1998)이 제시한 확인추구 및 성장추구 목표성향과 자기효능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확인된바 없으나 Dyckman의 목표성향이 Dweck이 제안한 학습목표와 수행목표성향에 기초하여 보다 통합적인 가치와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목표성향이기에 때문에 Dyckman의 확인추구와 성장추구 목표성향 역시 자기 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장추구 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추구 목표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한 자기효능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Kanfer(1990) 역시 목표성향이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동기적 기제로서 목표성향과 수행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증거를 밝힌 연구도 있다(Phillips & Gully, 1997; Steele-Johnson, et al., 2000).

####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목표성향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목표 성향 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능에 대한 정체인론을 믿는 사람은 목표성향에 있어서도 자아관여, 확인추구, 수행목표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며 지능역시 노력보다는 타고난 능력이며 변치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는 다양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즉 지능에 대한 신념이나 목표성향이 개인의 노력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금 잘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력해야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과제는 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반면 지능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목표성향에 있어서 성장추구성향, 과제관여목표성향, 학습목표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며 노력이나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장 잘할 수 없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능에 대한 정체인론을 지니고 있는 개인은 고정된 자신의 능력범위 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행목표를 추구하며, 증진이론을 지닌 개인은 긍정적인 평가보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숙달 목표를 지향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Dupeyrat & Marine, 2005; Dweck & Legett, 1988; Roedel & Schraw, 1995; Stipek & Gralinski, 1996).

#### 부모의 양육태도(노력중심/결과중심)와 지능에 대한 신념, 목표성향, 자기구실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하며(Zimmerman 등, 1992)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박영진 등, 1999; Bandura, 2002; Chung, Park, & Kim, 2001) 입증되었다. 그밖에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성취압력’ ‘애정’ 등이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갑순 등,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변인 외에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성취와 관련하여 과정(노력)지향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결과지향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자녀들의 지능

에 대한 신념이나 목표성향, 자기구실화라는 변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성취지향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그 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당장의 결과’를 중시하는 성취지향적 태도를 지닌 부모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당장의 결과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면에서 성취를 중요시하는 따라서 ‘노력과 학습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지닌 부모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들의 지능에 대한 신념과 목표성향(확인추구/성장추구)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자기구실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노력지향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능이 노력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시키며 이렇게 지능이 노력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고 믿는 자녀일수록 눈앞에 놓인 과제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노력하며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목표성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간의, 당장의 좋은 결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 입증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은 과제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노력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부모가 그러한 점을 격려해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결과가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지능이 오랜 연습과 노력을 통해 향상되는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타고난, 고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자녀에게도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목표를 갖도록 독려할 것이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제 혹은 익숙한 과제만 하거나 자기구실화를 만들어 나쁜 결과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능에 대한 신념과 목표성향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하게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된 변인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지능에 대한 신념, 목표성향과 자기 효능감, 지능에 대한 자신감,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위의 여러 가지 변인가운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지능에 대한 신념, 목표성향의 변인을 선정하여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다. 이 변인들은 개념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선행변인과 이에 영향을 받는 변인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부모의 양육 태도(노력중심 양육태도와 결과중심 양육태도)가 가장 선행하는 변인으로서 지능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고, 지능에 대한 신념이 목표성향에 영향을 주어 자기구실 만들기에 이르는 과정을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연구의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적 지능에 대한 신념을 지닌 사람일수록, 확인적 목표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자기효능감이 적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결과중심의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둘째, 지능에 대한 자신감이 적을수록 지능에 대한 정체적 신념을 지니고 자기효능감이 적으며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방식과 지능에 대한 신념, 목표성향간에 관계가 있어, 결과중심의 양육방식은 지능에 대한 고정적 신념과, 확인추구 목표성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며 노력중심의 양육방식은 지능이 변화 가능하다는 신념과 성장추구 목표성향과 관련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의 양육방식은 지능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고 이는 목표성향에 영향을 주어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연구방법

#### 조사 대상

본 연구는 2007년도 5월에 H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남학생 45명, 여학생 71명 총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년별 구성은 1학년 54명, 2학년 20명 3학년 19명 4학년 22명이었다.

#### 측정 도구

##### 자기구실 만들기

Jones와 Rhodewalt(1982) 가 만든 Self-Handicapping Scale 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25개의 문항으로 ‘나는 가능하면 끝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거나 실패했을 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경쟁적인 활동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811로 높은 편이었다.

####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즉 지능이 변한다고 믿는가 아니면 정체적인 것이라고 믿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Dweck(2000)이 만든 6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나의 지능은 일정하다. 그래서 내가 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와 같은 문항이었는데, 모두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의 신뢰도는 .875였다.

#### 지능에 대한 자신감

지능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Dweck(2000)이 만든 6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내가 머리가 좋다는 사실을 자신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모두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25였다.

#### 목표성향

목표성향은 두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Dyckman(1998)에 의해 만들어진 척도로 확인추구를 측정하는 18개의 문항(예를 들어 ‘나는 내가 실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능을 향상 시켜본다’)과 성장추구를 측정하는 18개의 문항(‘나는 어렵거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데 익숙하다’), 모두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신혜진(2005)에 의해 처음으로 번안되어 사용되었으며 원 척도는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으나 신혜진의 연구에서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도 확인추구성향과 성장추구성향의 2요인이 확인되었다. 원척도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확인추구의 경우 .97, 성장추구의 경우가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확인추구가 .90, 성장추구가 .88이었다.

#### 자기효능감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2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 5문항의 세 하위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 문항을 이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6점 척도상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김아영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세 개의 하위척도별로 .81에서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 평가에 대한 두려움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로 제작한 원래 척도를 Leary(1983)가 축약하고 이것을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별 상관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걱정이 된다’ ‘사람들이 나의 결정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와 같은 내용으로, 모두 12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이다. 점수분포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보고된 신뢰도는 .90이었다. 본연구의 신뢰도는 .87이었다.

#### 부모의 양육방식... 노력 지향, 결과 지향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서도 일의 과정과 노력을 중시하는 태도와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중요 변수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찾을 수 없어 본 연구자가 노력지향과 결과지향의 두 가지 차원을 선정하고 각각의 문항을 8개씩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노력지향의 문항은 평소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지, 실수에 대한 관용과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을 주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항상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평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내게 보여주신다’와 같은 문항이다. 반면 결과지향의 문항은 과정이 아닌 결과가 중요하다는 부모의 말과 행동,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 실수에 대한 엄격성, 부모의 의지대로 나를 키우려하는 점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야단치신다’ ‘부모님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와 같은 문항들이다. 각각의 내용을 묻는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결과중심의 양육태도를 묻는 문항의 신뢰도는 .679, 노력중심의 양육태도를 묻는 문항의 신뢰도는 .619였다.

### 결 과

#### 자기구실 만들기와 변인들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된다고 가정한 변인은 모두 8개의 변인이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자기구실 만들기와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탐색해보았다. 표 1을 보면 8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있다. 지능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지능고정신념, 성장목표, 확인목표, 노력중심 양육, 결과중심양육 변인이 모두 자기구실 만들기 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지능에 대해 자신감이 낮고 효능감이 약할수록,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한다. 또 지능이 불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려는 확인목표를 갖고 있을수록, 부모가 결과중심의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하며, 반면 경험을 통해 성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부모가 노력중심의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기구실 만들기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측정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상관계수를 통해 해석한 내용이다.

#### 지능에 대한 신념과 지능자신감, 효능감, 평가두려움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경우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신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지능에 대한 자신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44$ ). 지능의 불변성에 대한 신념은 자기효능감과도 역상관이 나타나( $r=-.36$ ),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능은 가변적이며 노력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능에 대한 불변성의 신념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r=.23$ ) 지능이 불변한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 지능에 대한 신념, 목표성향과 부모양육방식

지능고정 신념은 목표성향 가운데 성장 목표성향과만 유의미한 관련( $r=-.27$ )이 나타나 지능이 고정적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목표를 갖는 경향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능고정 신념은 확인 목표성향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정지능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 부모가 결과중심의 양육방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일수록 지능이 고정적이라고 믿고 ( $r=.26$ ), 부모가 노력중심의 양육방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일수록 지능이 노력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가변

표 1.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변인간 관계

	지능 자신감	효능감	평가 두려움	지능고정 신념	성장목표	확인목표	노력중심 양육	결과중심 양육
효능감	-.44**							
평가 두려움	-.28*	.32**						
지능고정 신념	-.43**	.35**	.23*					
성장목표	.17	-.41**	-.06	-.27**				
확인목표	.29**	.12	.43**	-.18	.18			
노력중심양육	.22*	-.36**	.03	-.39**	.25**	.14		
결과중심 양육	-.18	.39**	.45**	.26**	-.29**	.22*	-.20*	
자기구실만들기	-.26*	.66**	.55**	.31**	-.46**	.21*	-.22*	.52**

\* $p<.05$ , \*\* $p<.01$

주) 지능에 대한 신념은 점수가 높을수록 지능이 고정적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효능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적인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r=-.39$ ). 본 연구에서 목표성향은 두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성장추구와 확인추구 목표성향을 측정하였는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데 주목표를 두는 성장목표성향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는 확인목표성향으로 이 두변인은 개념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두변인간에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적상관( $r=.18$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척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념적으로 양립가능한 것인지는 추후의 논의에서 다룰 것이다. 목표성향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장목표성향이 양육방식과 더 관련깊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노력중심일 때는 성장목표가 촉진되는 반면( $r=.25$ ) 결과중심의 양육방식일 때는 성장목표 형성에 역기능을 하는 것( $-.29$ )으로 볼 수 있다. 확인목표성향은 결과중심의 양육방식과만 유의미한 상관( $r=.22$ )을 나타냈다.

#### 양육방식과 자기효능감, 평가에 대한 두려움

양육방식은 자녀의 효능감, 평가두려움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부모가 결과중심의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자녀일수록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효능감은 떨어지며 부모가 노력중심의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자녀일수록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이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결과중심의 양육방식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녀로 하여금 당장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경험을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효능감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자기구실 만들기를 통해 평가 상황을 피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다.

#### 자기효능감,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

자기구실 만들기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기구실 만들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결과 역시 이러한 예측을 지지해주었다. 즉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강한 정적 상관( $r=.55$ )을, 자기 효능감과는 강한 부적 상관을( $r=-.66$ )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낮고

자신이 평가받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낮은 자기 효능감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구실 만들기를 한다는 추론은 위의 결과를 볼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효능감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자기효능감은 실재의 능력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 양육방식과 관련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단기간의 결과위주의 양육방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는 평가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 부모의 양육방식, 지능에 대한 신념, 목표성향, 자기구실 만들기 경로분석

표 1에 나타나있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자기구실 만들기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간의 대체적인 관계는 파악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인들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 외에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조적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하나의 가설적 모델로 구성하고 경로 분석을 통해 지능에 대한 신념, 목표성향, 부모의 양육방식, 자기구실 만들기의 네가지 변인간의 인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 변인들 가운데 가장 선행하는 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보았다. 이 변수는 시간상으로도 가장 선행하며, 자녀의 성취와 관련된 행동의 중요 설명변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두가지 양육방식에 따라 지능에 대한 신념이 성장 초기에 암묵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지능 신념이 목표성향에 영향을 미쳐, 지능이 고정적이라고 믿는 청소년일수록 확인적 목표성향을 갖기 쉽고, 지능이 노력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라고 믿을수록 지금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성장 목표성향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목표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능에 대한 정체적 신념에 영향을 주고 지능에 대한 정체적 신념이 목표성향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두 변인이 자기구실 만들기를 매개하는 모형을 구상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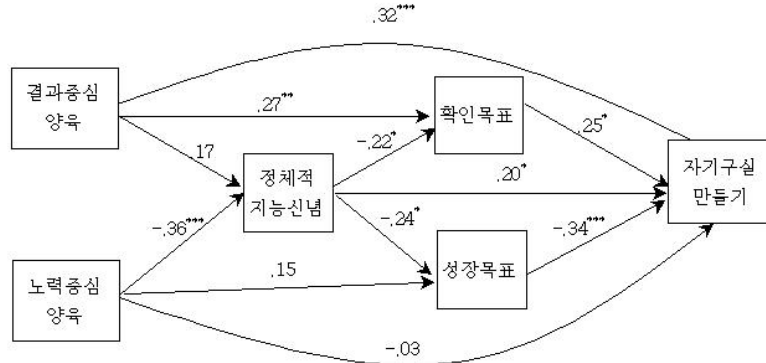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양육태도, 지능신념, 목표성향, 자기구실 만들기의 경로모형

표 2. 모형의 적합도

	$\chi^2(p)$	자유도	CFI	RMSEA	TLI
연구모형	12.39(.01)	3	.907	.165	.347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정한 결과,  $\chi^2$  값과 CFI 값은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반면 RMSEA 지수와 TLI 지수는 수용할 수 있는 기준 값과 비교할 때 낮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가설적 모형과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

가 표시되었다.

그림 1을 보면 결과중심양육( $\beta=.32$ )과 정체적 지능신념( $\beta=.20$ ), 확인목표( $\beta=.25$ ), 성장목표( $\beta=-.34$ )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결과중심양육이 확인목표에( $\beta=.27$ ), 노력중심양육이 정체적 지능신념에( $\beta=-.36$ ), 정체적 지능신념이 확인목표( $\beta=-.22$ )와 성장목표( $\beta=-.24$ )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다.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의 직접효과

표 3. 연구모형의 경로추정치

	추정치(estimate)	S.E	C.R.	p
결과중심양육 → 지능신념	.18(.17)	.098	1.793	.073
노력중심양육 → 지능신념	-.48(-.36)	.127	-3.775	.000
지능신념 → 확인목표	-.26(-.22)	.116	-2.197	.028
지능신념 → 성장목표	-.29(-.24)	.130	-2.238	.025
노력중심양육 → 성장목표	.24(.15)	.163	1.472	.141
결과중심양육 → 확인목표	.32(.27)	.113	2.820	.005
지능신념 → 자기구실화	.40(.20)	.176	2.259	.024
결과중심양육 → 자기구실화	.64(.32)	.155	4.141	.000
노력중심양육 → 자기구실화	-.09(-.03)	.207	-.435	.663
확인목표 → 자기구실화	.42(.25)	.127	3.262	.001
성장목표 → 자기구실화	-.55(-.34)	.120	-4.539	.000

주)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화 추정치, 괄호 밖의 숫자는 비표준화 추정치를 나타낸다.

표 4. 연구모형의 효과계수

		노력중심 양육	결과중심 양육	정체적 지능신념	성장추구	확인추구
정체적 지능신념	직접효과	-.36	.17	-	-	-
	간접효과	-	-	-	-	-
	전체효과	-.36	.17	-	-	-
성장추구	직접효과	.15	-	-.24	-	-
	간접효과	.09	-.04	-	-	-
	전체효과	.23	-.04	-.24	-	-
확인추구	직접효과	-	.27	-.22	-	-
	간접효과	.08	-.04	-	-	-
	전체효과	.08	.23	-.22	-	-
자기구실 만들기	직접효과	-.03	.32	.20	-.34	.25
	간접효과	-.13	.10	.03	-	-
	전체효과	-.17	.42	.23	-.34	.25

와 간접효과를 계산한 것이 표 4에 제시되었다.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살펴보면, 양육태도 중 노력중심양육태도는 자기구실 만들기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03인데 비해 정체적 지능신념과 목표성향을 통해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13로 자기 구실 만들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지능에 대한 신념과 목표성향을 매개로 하여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결과중심양육태도는 지능에 대한 신념이나 목표성향을 매개하는 간접효과도(.10) 있으나 자기구실 만들기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32)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체적 지능신념은 자기구실 만들기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나(.20) 목표성향을 통해서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능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노력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아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로서 유효하며 목표성향에 영향을 주어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변인들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순비교하면, 결과중심의 양육태도가 가장 크고(.42) 다음으로 성장추구목표(-.34), 확인추구(.25), 정체적 지능신념(.23), 노력중심양육태도(-.17)의 순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자기효능감, 평가에 대한 두려움, 목표성향을 측정하여 이 변인들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기구실 만들기과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자기 효능감, 목표성향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 변인들이 자기구실 만들기과 관계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지능이 변하지 않는 정체적 속성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또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주목표인 확인 목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기 구실 만들기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두려움을 많이 느낄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어적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자기 구실 만들기과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목표성향이 부모의 양육태도- 노력 중심/ 결과중심-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간에도 상관관계가 있어, 결과지향의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지능은 고정되어있어 변하기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이 갖는 목표성향과도 관련이 있어 노력을 중요시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성장추구 목표를 가지고 있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결과를 중시하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확인 목표성향도 자기구실 만들기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항상 일의 결과가 중요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남들보다 그것을 잘하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경향성이 확인추구 목표성향을 갖게 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지능(능력)은 고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상황은 두려움을 초래하고 이런 상황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가 자기구실 만들기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능에 대한 고정적 신념과 확인 목표성향이 자기 구실 만들기와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러한 변인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있다고 가정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어느 정도 이러한 가정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결과중심 양육태도는 지능이 정체적인 것이라는 신념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신념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당장의 성과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확인목표성향을 갖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나타낼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회피전략인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하게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노력중심의 양육태도는 지능이 노력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하며 이러한 신념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목표를 갖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지금 당장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자기구실 만들기를 적게 하도록 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로 외에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 결과중심의 양육은 자기구실 만들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큰 반면 노력중심 양육은 지능에 대한 신념과 목표성향을 거친 간접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노력을 중시하는 양육태도는 지능에 대한 신념과 목표성향을 매개해서 나타

나는 것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결과중심의 양육태도는 즉각적으로 자기구실 만들기를 하게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는데, 성취에 대한 부모들의 조급하고 근시안적인 생각과 태도가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의욕을 꺾고, 부모나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잘하고 익숙한 것만 반복해서 하고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은 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게 만들어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실패를 통해 더 성장하는 경험을 원천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성취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주어지는 일의 긍정적 결과를 얻거나 실패를 피해가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의 가치를 익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력중심, 과정중심의 양육이며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녀의 성취동기를 고취시키고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로분석결과는 모형의 적합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몇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샘플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목표성향이 이론적으로는 상반된 두가지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적상관을 보인점, 그리하여 두 개의 개념적 경로를 설정한 것이 사실상으로는 모형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좀 더 면밀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정밀한 척도를 개발하거나 면접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실제로 그러한 부모의 자녀들이 행동에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보이는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자기구실 만들기 간에 관련성이 나타났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지능에 대한 정제적 신념과 증진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을 세분하여 자신의 지능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서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과 지능에 대

한 자신감이 낮으면서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간에 자기구실 만들기에 차이가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신념이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지능은 좋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정체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구실 만들기를 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취를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남보다 나은 성취수준을 달성하길 바란다. 또 부모들은 자식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동기를 고취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닌 순간순간의 노력과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권준모 (2000). 심리학과 교육. 서울 : 학지사.
- 권준모, 이훈구, 이수정 (1998).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동향 : 사회적 정보의 자동적 처리. 한국심리학회 : 사회 및 성격, 12(1), 1-36.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박영신,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과 행동특성. 박영신, 김의철 역.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 총서3. pp.11-68. 서울 : 교육과학사.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중단적 분석 : 자기조절학습효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과 2002년 연차학술대회 교육심리분과 발표, 1-19.
- Bandura, M., & Dweck, C. S. (1985). *The relationship of conceptions of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goals to achievement-related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Unpublished manuscript, Harvard University.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5).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86-198.
- Berglas, S., & Jones, E. E. (1978). Drug choice as a self-handicapping strategy in response to noncontingent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405-417.
- Buter, R. (1987). Task-involving and ego-involving properties of evaluation : Effects of different feedback conditions on motivational perceptions, interes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474-482.
- Chung, K. S., Park, Y. S., & Kim, U. (2001). The change, formation, and influence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life-satisfaction :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119.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Collins, J. L. (1982). Self-efficacy and ability in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 Duda, J. L., & Nichols, J. G. (1992). Dimensions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schoolwork and s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90-299.
- Dupeyrat, C., & Marine C. (200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goal orientation, cognitive engagement, and achievement : A test of Dweck's model with returning to school adults, *Contemporary Education Psychology*, 30, 43-59.
- Dweck, C. S. (2000). *Self-theories :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hiladelphia, PA : Psychology Press.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Dykman, B. M. (1998). Integrating 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in depression : Initial tests of a goal-orient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9-158.
- Ford, J. K., Smith, E. M., Weissbein, D. A., Gully, S. M., & Salas, E. (1998). Relationship of goal orientation, metacognitive activity, and practice strategies with learning outcome and transf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2), 218-233.
- Handerson, V., & Dweck, C. S. (1990). *Achievement and motivation in adolescence : A new model and data* In S. Feldman and G.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ackiewicz, J. M., & Elliot, A. J. (1993).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904-915.
- Higgins, R. L., & Harris, R. N. (1988). Strategic "alcohol" use : Drinking to self-handicap.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191-202
- Leggett, E. L. (1985, March). *Children's entity and incremental theories of intelligence : Relationships to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 Mueller, C. M., & Dweck, C. S. (199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 Malleability beliefs, definitions, and judgments of intelligence*. Unpublished data.
- Kanfer, R. (1990). Motivation and individual difference in learning : An integration of developmental, differenti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 221-239.
- Nichols, J. G. (1984). Achievement motivation : Conceptions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 328-346.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Special Issue : Conference on Restructuring the knowledge base of education in Asia.
- Phillips, J. M., & Gully, S. M. (1997). Role of goal orientation, ability, need for achievement, and locus of control in the self-efficacy and goal-setting pro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792-802.
- Potosky, D., & Ramakrishna, H. V. (2002). The moderation role of updating climate percep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orientation,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Human Performance*, 15(3), 275-297.
- Rhodewalt, F. (1990). Self-handicappers :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for anticipatory self-protective acts. In R. Higgins, C. R. Snyder, & S. Berglas(Eds.), *Self-handicapping : The paradox that isn't*(pp.69-106). New York : Plenum.
- Rhodewalt, F., & Davison, J. (1986). Self-handicapping and subsequent performance : Role of outcome valence and attributional certaint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7, 307-323.
- Roedel, T. D., & Schraw, G. (1995). Beliefs about intelligence and academic goal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0, 464-468.
- Schraw, G., Horn, C., Thorndike-Christ, T., & Bruning, R. (1995). Academic goal orientation and student classroom achieve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0, 359-368.
- Shepperd, J. A., & Arkin, R. M. (1989). Determinants of self-handicapping : Task importance and effects of pre-existing handicaps on self-generated handica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101-112.
- Steele-Johnson, D., Beauregard, R. S., Hoover, P. B., & Schmidt, A. M. (2000). Goal orientation and task demand effects on motivation, affect, and perfor-

- 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 724-738.
- Stipek, D. J., & Gralinski, H. (1996). Children's belief about intelligence and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Elementary School*, 107, 473-495.
- Treasure, D., & Roberts, G. C. (1994). Cognitive and affective concomitants of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s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6, 15-28.
- Zimmerman, B. J., Bandura, A., & Matinez-Ponz,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 **Effects of Implicit Belief of Intelligence, Parental Style and Goal Orientation on Self-handicapping**

**Jikyung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variables that influence self-handicapping. After the survey, hypotheses are proved. The implicit belief of intelligence, goal orientation,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and fear of appraisal influenced self-handicapping. A person who believed intelligence was fixed and had validation-seeking goal used more self-handicapping.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I found that implicit belief of intelligence and goal orientation mediated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on self-handicapping. This study implies that the outcome-oriented parental style reinforces the belief of fixed intelligence, validation-seeking goal and fosters children's fear of appraisal as a result. However effort-oriented parenting style reinforces the belief that intelligence is improved by efforts, and fosters growth-seeking goal. High self-handicapper uses self-handicapping as a means of avoiding the appraisal of 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s' effort-oriented parenting style is important in order to enhance achievement motivation.

**Keywords: Self-handicapping; Goal orientation; Implicit belief of intelligence; Outcome-oriented parenting style; Effort-oriented parenting style**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1월 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2월 15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2월 21일